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휴장. 유럽 증시, 러-우 종전 기대감 등으로 강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7일(월)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신규 관세 이벤트 부재 속 러-우 종전 협상 기대감, 방위비 지출 증가 전망 등에 따른 방산주 동반 강세 등으로 상승(독일 닥스 +1.3%, 유로스톡스50 +0.5%).

전일은 잠잠하긴 했으나, 관세와 관련해 시장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전에 경험해 봤듯이 트럼프가 기습적인 혹은 기존의 행보를 반복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 가령, 상호관세는 부가세, 규제, 환율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성과 모호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요소.

지난 2월 10~14일에 걸쳐 블룸버그에서 시행한 관세 영향 설문에서도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관세 경계감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 상태. 일례로, 관세 리스크 지속 시 현 4.4~4.5%대 수준에 있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향후 6개월 이내에 4.75~4.80%대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었으며, 달러 역시 현재 레벨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인 상황(1개월 이내에 달러와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각각 69%, 71%를 기록).

이 같은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최근 2~3거래일간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재차 유입되면 반등한 바이오 등 성장주의 주가 충격이 불가피할 것. 다만, 미국 경기를 둘러싼 골디락스 내러티브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관세 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초래할 달러, 금리 상승 압력을 중화 시켜줄 수 있다고 판단. 미국 경기 모멘텀을 측정하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17일 현재 -0.5pt로 지난 12월 초 고점인 +34pt에서 속락하면서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도 인플레이 압력을 낮춰주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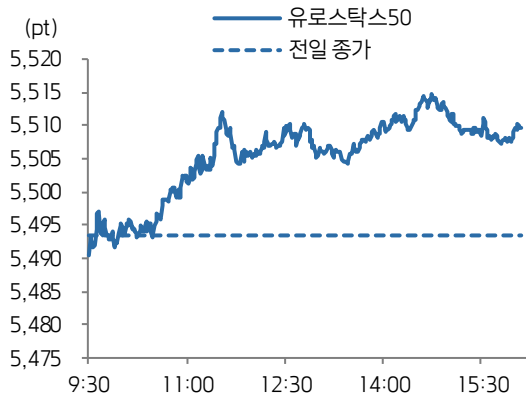
상기 서베이에서도 향후 6개월간 트럼프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전략으로 "안전자산 매입(응답률 25%)"보다는 "변동성 베팅(응답률 41%)" 의견이 우세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앞으로 관세 이슈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8~19년처럼 주식 매도세로 대응하기 보다는 관세 뉴스 플로우에 따라 업종 순환매 플레이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함을 시사.

전일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소식에 따른 자동차주 약세에도, 미국 금리 하락, 중국 경기 기대감 등에 힘입어 바이오,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0.7, 코스닥 +1.6%).

금일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속도 부담 속 장중 미 선물 시장 및 중화권 증시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숨고르기에 나설 전망. 업종 측면에서는 러-우 종전 기대감에도,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증액 전망으로 유럽 방산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 만큼, 국내에서도 방산주(조선, 기계)의 주가와 수급 쏠림 현상 여부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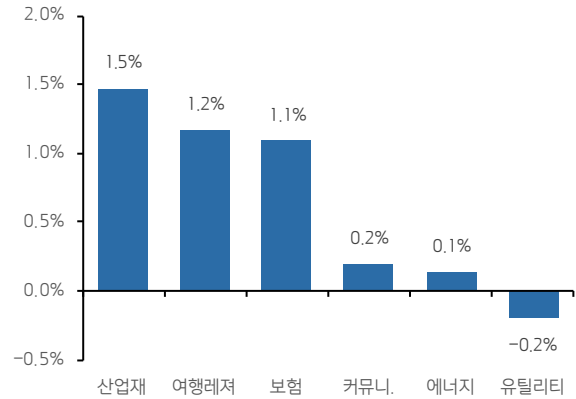
한편, 코스피의 후행 PBR도 0.92배를 기록하며 '24년 10월 2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 논란도 발생할 가능성. 그러나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무역분쟁 피해국가 인식, 계엄사태 발 소버린 리스크 우려 등으로 급격히 조정을 받은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 따라서, 향후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급격한 가격 조정이나 숨고르기 장세의 장기화 가능성은 낮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

유로스탁스50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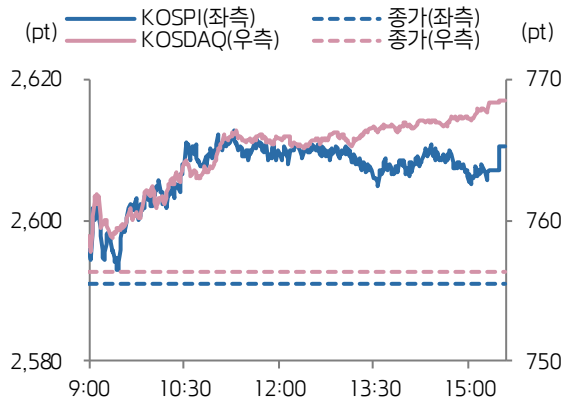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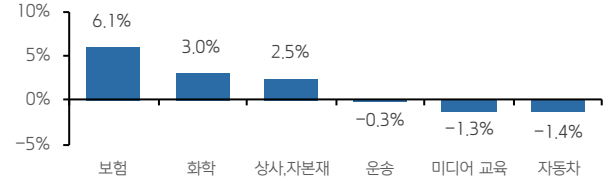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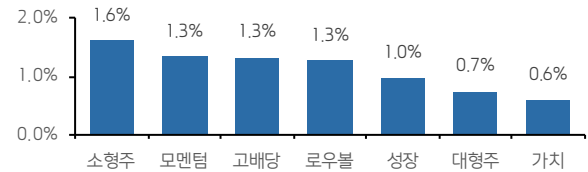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610.42	+0.75%	+8.79%	USD/KRW	1,442.00	+0.01%	-2.06%
코스피200	345.11	+0.69%	+8.59%	달러 지수	106.76	+0.04%	-1.6%
코스닥	768.48	+1.61%	+13.31%	EUR/USD	1.05	-0.08%	+1.26%
코스닥150	1,303.25	+1.57%	+15.35%	USD/CNH	7.27	+0.12%	-0.98%
S&P500	6,114.63	-0.01%	+3.96%	USD/JPY	151.51	-0.53%	-3.62%
NASDAQ	20,026.77	+0.41%	+3.71%	채권시장			
다우	44,546.08	-0.37%	+4.71%	가격	DTD(bp)	YTD(bp)	
VIX	15.37	+4.06%	-11.41%	국고채 3년	2.622	+1.4bp	+2.7bp
러셀2000	2,279.98	-0.1%	+2.23%	국고채 10년	2.867	+2.1bp	-0.4bp
필라. 반도체	5,160.94	+0.09%	+3.63%	미국 국채 2년	4.259	+0bp	+1.7bp
다우 운송	16,606.53	+1.29%	+4.47%	미국 국채 10년	4.476	+0bp	-9.3bp
상해종합	3,355.83	+0.27%	+0.12%	미국 국채 30년	4.696	+0bp	-8.5bp
항생 H	8,323.67	-0.09%	+14.18%	독일 국채 10년	2.489	+5.8bp	+12.2bp
인도 SENSEX	75,996.86	+0.08%	-2.74%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519.83	+0.48%	+12.74%	WTI	70.74	-0.77%	-0.72%
MSCI 전세계 지수	884.24	+0.21%	+5.1%	브렌트유	75.22	+0.64%	+0.78%
MSCI DM 지수	3,898.87	+0.12%	+5.15%	금	2,900.70	-1.52%	+8.8%
MSCI EM 지수	1,125.23	+1.08%	+4.63%	은	32.86	+0.39%	+12.36%
MSCI 한국 ETF	56.68	+0.59%	+11.38%	구리	466.45	-2.38%	+15.85%
디지털화폐				BDI	792.00	+1.54%	-20.56%
비트코인	96,417.79	-0.79%	+2.89%	옥수수	508.75	+0.54%	+9.23%
이더리움	2,776.88	+3.32%	-17.02%	밀	613.50	+3.63%	+9.07%
				대두	1,052.75	+0.55%	+2.98%
				커피	407.40	-4.16%	+29.3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월 1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